보도시점 2026. 5. 26.(화) 12:00 배포 2026. 5. 26.(화) 08:00

달콤함에 속고, 중독에 갇히다! 가향담배의 위험한 진실

- 청소년 및 젊은층의 흡연 시작을 쉽게 하는 가향담배의 위험성 인식 제고 필요
- 다양한 맛과 향을 첨가한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카드뉴스 배포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5월 31일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World No Tobacco Day)'을 맞아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알리는 카드뉴스를 배포**한다(붙임1). **'가향담배'는 청소년과 젊은층의 흡연 시작을 유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담배폐해**와 **중독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촉진**하여 **담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87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특히 올해는 **다양한 맛과 향**으로 **청소년** 및 **젊은층**에게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 사용**으로 **니코틴 중독**에 이르게 하는 **가향담배**의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 주제: Unmask the Appeal - countering nicotine and tobacco addiction

가향담배란 멘톨, 과일, 초콜릿 등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제조한 담배**이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맛과 향이 들어간 액상제재를 첨가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담배필터에 캡슐을 삽입하거나(캡슐담배), 담배포장지에 향을 입히는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가향담배의 맛과 향은 특히 **청소년**과 **젊은층**이 **쉽게 흡연을 시작**하도록 유혹한다. 또한 일반담배(궐련)의 쓴맛과 매캐한 냄새, 목의 자극을 가려 가향담배를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하고 **계속 피게** 하여, 결국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6차('24년) 청소년건강패널조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77.3%**(남학생 79.5%, 여학생 73.1%)가 **처음 담배제품**을 사용할 때 **가향담배**를 **사용**하였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로 가향담배를 시작한 청소년은 86.3%였고 그중 여학생이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청소년의 처음 담배제품 시작 시 가향담배 사용률 >

처음 사용한 담배제품	전체			남학생			여학생		
	N	n	%[1)]	N	n	%[1)]	N	n	%[1)]
전체	406	315	77.3	276	215	79.5	130	100	73.1
일반담배 (궐련)	265	194	72.6	179	134	76.6	86	60	64.3
액상형 전자담배	125	107	86.3	82	68	84.8	43	39	88.8
궐련형 전자담배	13	11	87.4	12	10	85.2	1	1	100.0
모름	3	3	100.0	3	3	100.0	0	-	-

[1)]가중치 적용 백분율
출처: 제6차 연도(2024) 청소년건강패널조사 통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행지침**에서도 "**가향성분**은 담배·니코틴 제품의 맛과 냄새를 개선해 **제품을 더 쉽게 사용**하도록 하며, **신규 사용자**를 **유인**하고 **기존 사용자**의 **지속 사용**에 **기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도한 경우(첫 한~두 모금), 비가향담배로 시도한 경우보다 **현재 흡연할 확률이 1.4배**(남자 1.6배, 여자 1.3배) 높았고, **가향담배로 흡연을 지속**할 확률은 **10.9배**(남자 11.4배, 여자 10.3배) 높았다.

* 출처: 가향담배 사용현황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연구(2022, 연세대 김희진)

국외 연구 결과에서도 **향이 첨가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가 **2년 후 담배를 끊지 못할 가능성**이 비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보다 **1.9배** 더 높았다.

* 출처: Steeger, C. M. et al., 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flavored tobacco use and tobacco product cess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adults. Preventive medicine. 2022.

가향성분은 담배의 위험을 덜 느끼게 하는 도구일 뿐, 담배 유해성을 줄이진 않는다. 대표적으로 **향료나 당류**는 전자담배 기기를 통해 가열되어 **에어로졸 형태로 폐로 흡입**될 경우, **호흡기질환 등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출처: Winnall, WR. 12.6.5 Toxicity of tobacco product additives. Tobacco in Australia: Facts and issues. Melbourne: Cancer Council Victoria. 2023.

브라질, 캐나다 등 국외 일부 국가에서는 담배 내 가향 첨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도 **가향담배 판매량이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국내 가향담배 시장 점유율: ('14) 14.0% → ('18) 30.8% → ('23) 46.5%
(출처: 가향담배 총체적 분석 및 규제방안 수립(2025, 서울대 조성일))

흡연은 **대표적인 건강위해요인**으로, 폐암, 두경부암 등으로 인해 **연간 7만 여명의 사망**과 **15조 원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계되었다(붙임2)*. **가향담배**는 **장기적으로 흡연 인구를 유입**시켜 **흡연폐해 및 사회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출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부담 산출 연구(2025, 서울대 조성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가향담배**는 덜 해로운 담배가 아니며, **청소년**과 **청년층 흡연의 관문**이 되고 **장기적**으로 **중독을 유발**할 수 있어 가향담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발간하는 카드뉴스**가 **가향담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담배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흡연폐해 예방과 관련 정책 강화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카드뉴스 열람 및 내려받기 경로**: 질병관리청 누리집(https://www.kdca.c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카드뉴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가향담배 카드뉴스

2. 직접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포스터

3. 2026년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

담당 부서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 · 건강위해대비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50)
		담당자	연 구 관	강성현 (043-219-2971)
			선임연구원	박성희 (043-219-2918)

붙임 1 **가향담배 카드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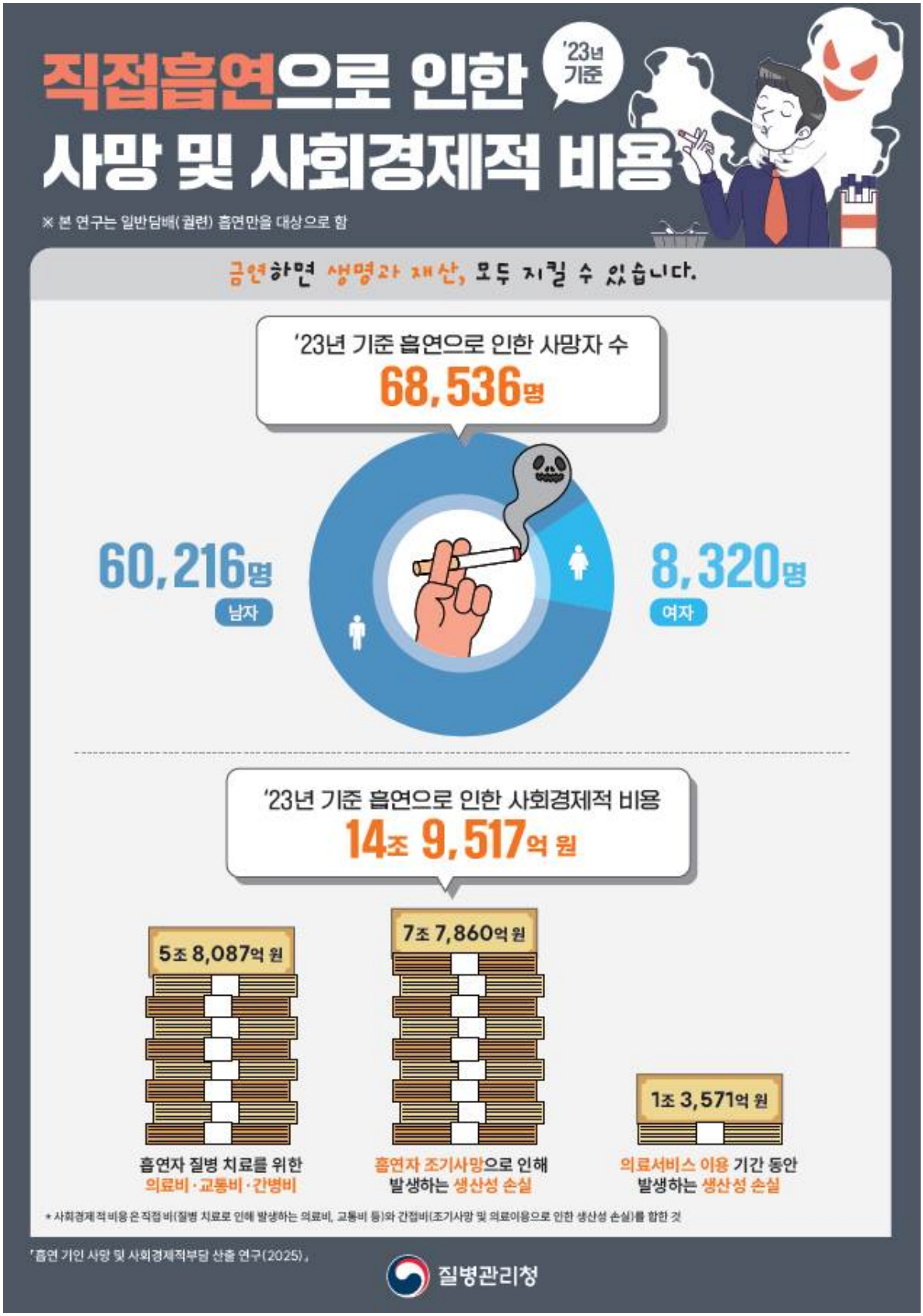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 직접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비용 포스터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3 | **2026년 세계 금연의 날 포스터**

